



이집트, 뉴질랜드산 유제품 수입개방 확대

이집트가 자국내 유제품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뉴질랜드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관세 내지 2% 저율로 인하하여 수입개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성장 가능성이 큰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유럽산 유제품과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가상승과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질랜드 낙농업계는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뉴질랜드 대표 낙농조합인 폰테라사는 이번 조치로 이미 1억4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집트내 뉴질랜드산 유제품 수입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airy Reporter 2월20일자)

일본, '05년 낙농가 연간 소득 5천813만원

'05년 일본 낙농가 호당 소득이 753만엔(5천813만원)으로 전년대비 6.1%가 감소한 것으로 농수산성이 발표하였다. 이같은 낙농경영여건의 하락은 유대 하락으로 유대수입이 줄어들고 젖소 취득가격이 오른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05년 기준 일본 전체농가중 농업소득이 가장 많은 것은 양돈으로 전년대비 2.7%증가한 896만엔으로 발표되었는데, 축산농가 전체 농가당 농업소득은 경종농가를 포함한 전체농가 평균 소득 414만엔을 크게 웃돈 것으로 발표되었다.

(일본농업신문 2월23일자)

우유 값 또 올랐다 울 여름 4달러 육박 전망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일원에서 판매되는 우유 소매가가 지난 3월 1일부터 갤런당 평균 3달러25센트로 전달 대비 11센트 인상됐다.

매달 주내 그로스리업소에서 판매되는 우유의 적

정 소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뉴욕주 농무부는 3월 1일부터 뉴욕시 메트로 지역은 갤런당 3달러25센트, 이외 업스테이트 지역은 갤런당 3달러 4센트로 전달대비 각각 11센트와 12센트씩 인상한다고 각 업소에 공식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에 뉴욕시 메트로 지역은 31센트, 기타 지역은 32센트씩 각각 인상된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울 여름에는 갤런당 4달러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내 소매업소는 주 농무부가 제시한 적정 소매가격보다 더 무늬없이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유를 판매할 수 없다.

미국, 서부지역 젖소비유축진 호르몬 전문 절도단 기승

미국 서부지역 대단위 낙농목장에 젖소에 투여하는 비유축진 호르몬만을 전문적으로 털어가는 절도단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지역에서 젖소 4천100여두를 사육하는 한 낙농가는 최근 3만달러(한화 2천8백만원)에 달하는 비유축진 호르몬을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당국자들은 성장호르몬이 암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주요 상품이 되고 있다며 다행히 최근 사용농가가 줄어들면서 도난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식품의약청이 지난 '93년 사용을 승인한 소 성장호르몬은 미국 전체 젖소 중 15~20%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민간 단체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캐나다와 유럽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내 위스콘신주등 일부 낙농가 단체들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

(The Associated Press 2월21일자)